



바다풍경 (27.5×39.5 종이에 수채), 1994, 이관직/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

겨울의 바다엔 생기가 있다
 바람도 차고 노동도 벅차다 물통의 물도 화판의 물감도 얼어 붙는다
 그러나 그 바람에 그 노동에 그 추위 때문에 오히려 나는 살아있음을 실감한다
 언제나 보아도 삶과 노동의 근원 주문진항
 노동과 생산이 있는 곳에서 나의 게으름을 뒤돌아 본다
 새해에는 보다 열심히 살아야지...